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읽기

리딩지저스
은혜나눔지

2024. 01. 14 – 12. 28.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강북우리교회

작성자	은혜나눔
강신금 집사	리딩지저스 덕분에 성경통독함에 감사드리며,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 듣고 리딩지저스를 묵상하신다는 혜숙 집사님의 나눔 말씀에 실시간이 아닌 몇 분 늦은 재방송을 들으며 리딩지저스를 공부 할 수 있어 나에게는 24년이 참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주일 9순 순원들 리딩지저스 후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감사하며,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감사가 넘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신 담임목사님 여러 가지 일로 동역하시는 목사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예원 집사	1년 동안 성경책을 1 독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리딩지저스를 통해서 1독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성경 1 독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태 안수집사	번잡한 생각들 때문에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완료할 수 있음에 감사, 향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상 사는 교훈이나 나를 위한 말씀보다 예수를 읽고, 십자가 복음을 발견하는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기회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김기남 집사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이 어려웠는데 리딩지저스를 통해 성경 통독을 하는 기쁨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았으니, 앞으로는 더 깊게 묵상하며 통독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익히며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함에 감사했습니다.
김대영 안수집사	1. 리딩지저스 교재가 많은 이해와 통찰력을 주었음. 2. 신약과 구약의 연결 및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의 성취를 느낄 수 있었음. 3. 성경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어서 은혜 받음.
김미원 은퇴권사	올해 리딩지저스 성경 통독 순원들과 함께 1 독을 한다는 것에 설레고 기대되었습니다. 주일~금요일 듣고 읽고 완독으로 화답하고 누구 한 사람 늦어지면 안부를 묻게 되고 바쁜 일상에서도 열심히 읽는 순원들 순모임에서도 말씀으로 나누며 은혜로 더욱 하나가 되는 우리 순원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순원을 사랑으로 묶어주신 주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순원들 말씀을 읽을 때면 주님이 옆에 계시는듯했다던 순원 내년에 성경 통독을 한 번 더 하겠다는 순원 모두 감사했습니다. 올해 제일 잘한 것은 성경 통독입니다. 하지만 내년에 성경통독 한 번 더 읽으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하기에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셨던 담임목사님 이광희 목사님 김은성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은혜나눔
김성우 안수집사	성경 일독 개근은 못 했으나 그래도 오랜만에 일독에 가까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았고, 순모임을 임할 때 다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성하 은퇴장로	성경 통독을 마치며 ~~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깊이 묵상하기는 처음이다. 구약에 말씀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고 신약에 말씀은 예언 성취에 말씀이라는 말씀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어둠의 빛으로 오신 것이라 하시는 것인지도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갈기 몰라 방황하는 내 마음 밭에 한 줄기 빛으로 오신 등불과 같은 것이며, 곧 내 영혼에는 생명수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들을 토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늘의 지혜를 구해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내 기도의 자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화의 자리인 것을 나는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며, 허례허식이나 가식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라 생각하며 새해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깨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종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 아멘 - -2024/12/30
김연실 권사	통독을 혼자서 할 때는 하루의 말씀 분량을 읽고 줄거리 정도를 아는 것에 만족하였는데, 이번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책과 영상 특히 목사님 설교 말씀으로 몰랐던 맥락과 의미를 알려 주셔서 더 집중하며 읽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쉬운 많은 부분은 새해에도 다시 통독하면서 예수님의 풍성함을 맛보는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또 주일 6순 순장님과 순원들 함께 할 수 있어서 힘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김영숙 권사	자녀 삼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보여주시고, 신신당부하시고, 참아 주시고, 때론 은혜로 흔들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벌거벗겨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말씀이 순간순간 생가 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가까이 이끌어 주시며, 구속하심이 감사하다.
김은성 집사	순장님 이하 순원들과 함께 통독하면서 완독할 수 있음에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 통독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혼자라면 하지 못했을 것을 순장님, 순원님들과 함께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순장님과 순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장생 은퇴집사	1. 체계적으로 꾸준히 읽을 수 있었다. 2. 매일매일 성경과 더 가까이할 수 있었다. 3.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은 얼마나 무섭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심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4. 2025년도에도 "리딩지저스"로 셩경 1 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5. 목사님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자	은혜나눔
김주희 집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읽기가 엄두도 안 났고,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읽지 못하고 필사를 시작했습니다.(22년도 가을부터...)사는 게 답답할 때 잡념들로 머리가 복잡할 때 생각 없이 그냥 말씀을 적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24년 1월1일 강북우리교회로 저를 인도하셨고, 리딩지저스를 통하여 순원분들과 성경 통독을 은혜 속에서 마칠 수 있었습니다. 리딩지저스를 통해 나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삶의 해답을 배워나갑니다. 25년에도 성경읽기를 멈추지 않고 성경 말씀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지연 집사	늘 혼자서만 읽던 성경 통독을 올해는 전교인 대상으로 읽게 되어 함께하는 공동체로서 더 끈끈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 읽지 않던 분들도 시작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은 신약에 주로 등장하시고 구약은 아주 조금만 예표로 등장하시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리딩디저스를 통해 신구약 전체가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성경 중에서 시편과 욥기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시 150편에 구성도 놀랍고 결국엔 찬양으로 결말이 나는 것도 재미있었고 탄식을 통해서도 시가 되며 그러는 중에 마음의 변화가 생겨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서 감동이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몸에 체득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 욥의 변화로 저의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끝부분에 하나님이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욥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몰랐던 부분은 새벽예배와 주일예배로 꼼꼼히 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혜 집사	말씀에 너무 무지했음을 고백합니다. 리딩지저스를 통해 혼자가 아닌 함께 성경을 읽어 더욱 성실히 읽고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진숙 권사	한 해 동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리딩지저스를 잘 마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평상시 혼자서 성경통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실패 할 때가 많았는데, 이번 전교인 성경통독인 리딩지저스를 할 수 있어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었고, 매 주일과 금요성령집회 때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풀어 주시고 해석해 주신 것이 많은 도움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또 순원님들과 말씀 나눔과 교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게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고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순종 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노난주 권사	1년 동안 혼자가 아니라 순원들과, 크게는 교회 성도들과 성경 읽기를 함께 하니 힘이 들 때는 서로 격려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한 주간 읽은 본문으로 묵상했거나 기억나는 내용을 나눔 하는 시간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박경숙 집사	이번에는 적은 분량으로 천천히, 그리고 내용도 정리하며 정독하니 더 주님을 알아 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욱 감동으로 와닿았고 또 순원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더 은혜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성자	은혜나눔
박기희 집사	매년 통독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리딩지저스에 대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니, 예전에는 미처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국민학교 때 보물찾기를 하면 한 번도 찾지를 못했었는데,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이렇게 많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마치 숨은 보물찾기처럼 성경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과,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은 감사와 감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완독하고 난 지금, 저는 “좀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기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는 부지런함이 내년에는 더욱 활발하기를 기대합니다. 제게 주신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어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내겠습니다.
박영희 집사	리딩지저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순모임에서 나눌 때도 성경 중심으로 나눔도 하고 나의 작은 믿음이 조금은 큰 믿음이 된 것 같아요. 이런 것이 공동체의 힘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인숙 집사	리딩지저스를 통해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들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 묵상을 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시고,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게 하셔서 저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송해닮아 청년	성경 통독을 개인적으로 3-4년 했지만 혼자 할 때는 의무적으로 하는 느낌도 많았고 밀리는 경우도 많아서 어려웠지만, 공동체랑 함께 읽어간다는 느낌으로 하니 더 열심히 읽게 되었고! 청년부에서는 평일에 통독반을 함께 하면서 더 읽는 데 도움 되었고 부담 없이 일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명희 권사	리딩지저스를 1년 가까이하는 동안 말씀을 읽고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 가면서 이해되는 말씀도 있었고 순모임에서는 말씀으로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아직 리딩지저스가 끝나지 않았지만, 끝까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려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윤은경 집사	새해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다짐하는 게 성경 통독이었습니다. 혼자 읽을 때는 시간과 상황 때문이라는 핑계로 건너뛰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역시나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니, 예전과 달리 마음의 태도가 달라져서 빠짐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리딩지저스를 통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은 읽어도 읽어도 새롭고 내 영혼을 위한 양식임을 또 깨닫습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길 더욱 사모하고 소원합니다.

작성자	은혜나눔
이경자 무임권사	연초가 되면 항상 성경 통독을 해야 하겠다는 다짐만 했는데..., 2024년 한해, 리딩지저스 통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게 되어 하나님께 직분자로써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뿌듯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전날 말씀이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읽을 때, 꼭 저의 기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 책임을 따를 때도 있었지요~ 이번 리딩지저스를 통하여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과 은혜와 진리 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수연 집사	우리 속담에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다. 리딩디저스를 하면서 이 속담을 묵상했다. 벌써 고지가 보이고 완주할 거라는 뿌듯함도 느낀다. 또 참 예수님을 찾는 기회도 됐으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한테도 진심으로 예수님을 알리는 시간도 되었답니다. 또한 작은 교회인 순 모임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거 같아요. 또 느낀 것은 리딩디저스를 하는 동안에 주님이 제 곁에 계시는 듯한 든든함도 있었답니다. 이런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성장시켜 주실려고 애쓰시는 우리 목사님 또 순장님, 우리 순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보다 내일을 아니 더 멀리 주님을 바라보면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수연 집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연신 권사	"리딩 지저스를 마치며...”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다. 죄인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이며 내 삶의 지침서이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만 치우쳐 있지는 않는지,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지어도 심각하게 받아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지 않았음이 깨달아졌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과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 삶을 살아야겠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졌고 기록된 대로 돌아가고 있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은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 수 있었다. 리딩지저스를 시작하도록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밥을 매일 먹듯이 성경 통독은 계속하려고 합니다.
이혜숙 A 집사	올해 리딩지저스를 통해 성경 통독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여러 경로를 통해 시작은 하지만 어느새 보면 제자리인 것을 보며 포기하곤 했어요. 리딩지저스는 영상으로 볼 수 있고 이것을 순모임 때 나누고 새벽기도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어지니 저의 기억에도 마음으로 느끼며 깨달음이 많아짐을 알게 되었네요. 이번 리딩지저스는 저에게 제대로 성경 통독을 하고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리딩지저스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순모임 감사합니다.

작성자	은혜나눔
이혜숙B 권사	1. '완독'과 함께 올라오는 매일 매일의 단문의 묵상 소감으로 순원들과의 더 긴밀하고 깊은 은혜의 교감이 좋았다. 2.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며 온전한 회복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태초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보게 하심으로 한층 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졌다는 생각이 든다. 3. 더욱 확실한 소망을 두고 일상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현실을 이겨내는 자로 남고 싶다는 선한 욕망을 갖게 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삶과 그 영광의 능력을 구하는 삶을 목적으로 하는 삶의 의미가 더 견고해졌다.
전명훈 안수집사	1. 성경 전체의 개관을 통해 말씀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커졌음. 2. 신약은 구약의 연속이고 성취이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임을 목도할 수 있었음. 3. 하나님의 끝 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고귀하고 숭고한 순종에 많은 감동과 도전을 받았음.
전인순 권사	순원들과 같이 하니 더 은혜롭고 한마음이 된 듯합니다.
정대성 장로	매년 성경 통독을 했지만 2024년은 리딩지저스를 통해 순식구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완료했다는 기쁨이 큰 은혜로 다가왔다... 오늘 마지막 분량을 마무리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이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향숙 집사	드디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 독을 마치었다.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셨고 에덴동산에 살게 하셨으나 사람들의 죄 된 속성으로 하나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이 세상을 살게 된다. 많았던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해 본다.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어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대표 인물들도 다들 죄를 지으며 살아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 죄를 당연히 짓는다고 위로하며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도 많은 선지자들은 죄를 안 지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사람이란 존재는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얼마나 스스로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 보여준다. 믿음의 선배들도 다를 게 없는 인간이기에 예쁜 여자를 보면 마음이 움직이고,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하고, 술에 취해 행동을 막 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밥 먹듯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다. 다만 우리가 지은 잘못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삶의 일부려니 생각하고 그냥 덮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사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회개하고 다신 그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그런 신앙의 선조,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이 주신 빛나고 새하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 세마포에 얼룩이 묻지 않기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 자신도 세상 속에 살며 이기는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어서)

작성자	은혜나눔
정향숙 집사	얼룩이 묻고 오물이 튈 때 세마포 옷을 들고 걱정 근심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다시 만들어 신부로서의 자세를 갖추는 품위를 갖추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하며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지 않아 그 이마에 표를 얻지 않아 힘들지 않더라도 난 나대로의 이 세상을 살며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살아갈 것이다. 내년에도 1 독을 하며 다시 성경을 보면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보일까? 21년에 1 독 22년에 1 독 23년에 1 독 24년에 2 독 그 내용을 잘 알진 못해도 내 자신이 그냥 뿌듯하다. 다만,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좋고 행복하다. 가끔 목사님 설교를 통해 잘 몰랐던 부분이 확 이해될 때 그 기쁨은 너무 감격스럽거나 황홀할 때도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내 삶이 그대로 되질 않아 입으로는 성경 말씀을 말하나 나의 행동이 그것에 반한 행동을 하게 될까 두렵다.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본다. 내가 앞과 뒤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그것이 너무 두렵다. “믿는 사람만 조심하면 된다.” 이런 말이 괜히 나왔으려나~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믿는 사람들을 욕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도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나의 세마포 옷은 얼마나 희어졌을까? 궁금해하며, 영의 눈으로 바라보려 한다. 너무 감사하다.
주일 2순	• 혼자 했다면 포기했을 성경 1 독을 교회 주최로 순원들과 함께 매일 하다 보니 습관이 되지 않아 처음엔 따라가기가 힘들었습니다. 밀렸다가 몰아서 하기도 하지만, 1 독을 성공하고 나면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성경이 많이 어렵지만 내년에 2 독에 도전해 보려는 마음도 생길 것 같습니다. • 아침과 저녁마다 2번을 읽어서 올해는 성경 2 독에 성공하게 되서 의미 있고, 매일의 처음과 끝 시간을 성경 읽기로 하게 된 뜻깊은 한 해인 거 같습니다. • 너무 힘들었지만 1 독을 하게 돼서 좋습니다.
최필규 은퇴장로	올 한해 리딩지저스를 통해 전교인 성경일독으로 매일 영의 양식으로 공급 받고 듣고 읽고 묵상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오직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수고해 주신 강북우리교회 모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25년도 변함없이 강북우리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정례 은퇴권사	마음을 정돈하며 읽으며 날마다 시간 정해 놓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심과 구별된 자로 선택됨에 감사하다. 구별된 자, 인침 받은 자로 14만 4천 명 안에 거한 자로, 세상과 섞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가는 인침 받은 자로서 무엇이 부족하랴.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로 늘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가 다 감사하니 측량할 수 없는 희락이 넘칩니다! 소망을 갖고 옳은 행실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자, 곧 주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이 땅을 이기는 자로, 사랑, 섬김, 인내로써 종말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쳐본다. 리딩지저스를 끝내며...